

‘여객선 공영제’ 첫발...신안교통재단 전국 최초 출범

공영선박 운영 전문성·책임성·공공성 등 확보 남부권역 항로·선박 3척 인수 취항식도 가제

섬으로 형성된 전남 신안군에 공영선박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신안교통재단이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2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신의면 동리 선착장에서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신안교통재단을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신안군의 남부권역(하의, 신의, 장산) 항로가 공영화됨을 기념해 신의면 동리선착장에서 취항식에 함께 열렸다.

(재)신안교통재단은 신안군이 100%를 출연했다.

그동안 민간선사에서는 수익성을 이유로 운항시간 지연, 고장·검사·점검 등의 사유로 잦은 결항과 시설의 질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또 군 소유의 공용선박을 ‘신안군도선운영협의회’에 위탁 운영했으나 전문성, 책임감, 안전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해 해상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과 편리성을 높인 해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신안군은 지난 2022년 재단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21일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이날 출범식을 갖게 됐다.

이날 교통재단 출범식과 함께 가진 취항식은 그동안 남신안농협에서 운영하던 남부권역 항로를 군에서 인수하면서 이뤄졌다.

신안군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운항의 지속을 담보할 수 없고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을 우려해 남신안농협에서 운영하던 3척을 인수해 공영화했다. 군에서 인수한 3척의 선박은 천사 1, 2, 3호로 선명을 변경했다.

천사1호는 364t급, 천사2호는 486t급, 천사3호는 720t급이다. 총여객 1027명, 차량 119대를 수송할 수 있는 규모로, 천사1·3호는 하의



신안교통재단 출범 및 공영여객선 취항식. (사진=신안군 제공)

~신의~장산~목포 항로를, 천사2호는 안좌에서 장산·신의·하의 간을 신설 운항한다.

박종원 신안교통재단 초대 이사장은 “섬에서의 교통은 그 자체로 인권이자 복지이며 주민들의 삶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며 “남부권역 여객선 공영제를 시작으로 중부·북부권 등 신안 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영광군, 국가차원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 요청

영광군은 5월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 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이 준비한 13개 주요 핵심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이번 보고회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건의할 영광지역의 강점과 미래비전을 반영한 과제를 발굴해 정책공약화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관련 부서장 및 실무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은 보고회를 통해 ‘국가차원의 최초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와 ‘서남해안권 미래에너지산업 중심도시’를 영광이 나아가야 할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발전 지원 O&M 거점기지 건설, 탄소중립 스마트 농생명 산업단지 조성 및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등 각 분야에 공약을 제안했다.

영광군은 “햇빛과 바람은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가능성”이라며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과 서남해안 에너지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도약이 영광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약 제안 이후에도 새정부 출범 후 중앙정부 및 정당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제 국정과제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박효중 기자



목포시,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본격 추진

목포시는 지역 내 주요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02년 중앙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남양신도시 개발 승인 시 제시한 조건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사거리 및 전라남도청 입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계획을 현

재의 교통 여건 변화와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평면 교차로 방식으로 조정해 추진하는 것이다.

구조개선 대상 교차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사거리와 전라남도청 입구 사거리로, 목포·무안(남약)·영암 등 전남 서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축의 중심지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남양신도시, 하당, 목포 IC 등 주요 권역 간 교통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보행자 통행 안전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함평군,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펼쳐

함평군이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실시하며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나섰다.

함평군은 6일 “환경보전연합회, 푸른함평여성지킴이, 함평천지전통시장 상인회와 함평군 공직자 등이 지난 2일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심화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김광춘 기자

우수 영암 농특산품이 광주 아파트단지로 산지직송 영암군, 9~10일 계림아파트A서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개최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단지가 우수한 품질과 알찬 건강을 담은 영암 대표 농특산품 판매장터로 이를 동안 변신한다.

영암군이 9~10일 광주 동구 계림아파트 SK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민우)와 함께 아파트 내 쉼터광장에서 ‘2025 도시-농촌 상생 한마당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아파트 직거래장터는 광주시민에게는 영암의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 농업·기업인에게는 도심 판로와 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영암군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합의해 이뤄진 것.

영암군은 지역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시 아파트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을 제시해 도농상생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농부남생이마켓단, 영암축협, 해피팜기찬양

조 등 영암 19개 농·생산지단체·기업 등은, 직거래장터에 각각 다양한 판매 리스트를 갖춘 판매 부스를 연다.

친환경쌀·한우·잡곡·채소 등 농축산물에서 된장·고추장·김치·요구르트·치즈·떡·전통주·무화과잼 등 가공식품까지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주민에게 제공한다.

아파트 직거래장터가 흥과 정이 넘치는 시골장터 분위기가 나도록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할인 이벤트도 풍성하다.

각 판매부스 별로 자체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해서는 가야금 공연, 사생대회가 열린다. 동시에 각종 체험 부스와 휴대폰 액정 교체 부스도 열려 실속 있는 장터가 될 전망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남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찾아가는 초등 경제 교실’ 성료

무안군 남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4월 한 달간 국립목포대학교 전남지역교육센터와 함께 운영한 ‘찾아가는 초등 경제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놀이와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투자, 경제,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경제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청소년들은 모의 투자와 경제 게임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 참여 청소년은 “게임을 통해 경제를 쉽게 배우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전의 주민생활과장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